

러시아 동포 간담회

이번 러시아방문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많은 일거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보면 볼수록 한국과 러시아는 협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.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많은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고 발전할 것입니다.

오랜 단절에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제 국가가 빛을 झा아야 할 때입니다.

여러분들의 살아온 기록과 역사를 읽으면서 항상 가슴이 찡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껴왔는데, 이곳에 와보니 국회의원도 계시고 각계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. “우리 동포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40년 동안 모국은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, 여러분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한국과 러시아 수교의 다리노릇도 해주셨습니다. 오랜 단절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

이젠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께 빛을 झा아야 할 때입니다. 우선 한국 기업들

이 러시아에 와서 활발히 교역하고 투자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고, 두 나라가 활발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도 잘되고 러시아도 잘되는 일이 생기면 그 또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

한국 국민들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

한국이 좀 시끄럽지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본시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. 모국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. 2001년에 3.3%, 2003년에 3.1% 성장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파탄이라고 얘기하고, 올해는 5%정도 성장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.

여러분들이 지난날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모두 극복해왔듯이 한국 국민들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이 잘되도록 성원해 주십시오.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 행사를 러시아 정부가 공식 승인해 주고 소콜로브 문화언론부 장관이 기념사업위원장을 맡아준 것은 한국민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